

상호금융 무리한 대출로 자산 부실화

순자본비율 '하락' 재무건전성 '흔들'

일부 조합·금융 기준 못미쳐 감독당국, 경영개선권고 조치 지역 농협측 지난해 소폭 상승

지역 일부 상호금융조합이 무리하게 대출·투자를 늘리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의 자산 부실화가 지속되면 자칫 조합원의 출자금을 온전하게 보호·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역조합 평균 순자본비율은 광주 8.85%, 전남 9.51%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은 조합의 각종 적립금으로 구성된 순자본 및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상호금융업권은 농협 160개(광주 14개·전남 146개), 신협 89개, 새마을금고 100개, 산림조합 22개, 수협 18개 등 총 389개다.

우선 농협은 지역본부에 속한 조합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소폭 오르고 있으나, 일부 지역조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 전남본부 소속 146개 조합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2017년 9.09%, 2018년 9.26%, 2019년 9월 9.51%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 14개 조합 평균 순자본비율도 2018년 8.80%에서 지난해 9월 8.85%로 소폭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본부 소속 한 조합은 순자본비율이 6.06%로, 평균보다 3.45%포인트 뒤처졌다. 광주본부 역시 소속된 7개 조합이 전년에 비해 순자본비율이 떨어졌고, 일부는 '6%'대 주저앉기도 했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소속 조합의 재무 건전성은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평균 순자본비율은 2017년 10.97%, 2018년 10.52%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9.9%까지 떨어지며 '10%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22개 조합의 개별 순자본비율도 최대 17.53%부터 최소 2.2%를 기록하는 등 격차도 컸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의 순자본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조합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려지기도 했다.

신협 광주전남본부 소속 89개 조합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2017년 3.79%, 2018년 4.73%, 2019년 5.28%로 집계됐다. 최소 요구 순자본비율(2%)을 넘기지 못한 광주·전남지역 조합은 2017년 10개, 2018년 8개, 2019년 5개로 조사됐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은 5곳이었다"며 "이들 조합에게 내려진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올해 모두 해제되도록 자본금 확충, 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경영실태평가 결과 최소 요구 총 자산 대비 순자본비율(4%)을 넘기지 못한 3.68%를 기록하면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들어갔다.

이 금고가 ▲신규회원 가입 활성화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부실채권 예방 및 연체대출금 적극 회수 ▲각 사업 경비절감 ▲자금운용·조달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을 권고받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은 8.14%(농협 8.93%·신협 5.84%·수협 4.89%·산림조합 11.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상호금융조합이 자산금을 키우기 위해 위험한 투자·대출을 하다 보면 출자금을 마지막에 돌려 받는 조합원의 손해를 불러온다"며 "향후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방식 및 최소 요구 순자본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건전성 비율 규제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점유율 2022년까지 35%로 높인다

지자체 금고 잇따라 유치...5곳 지점 승격 공격 경영 나서 송중욱 은행장 "지역민과 상생하며 더 높이 받돋움 하겠다"

지난 연말 지자체 금고를 잇따라 꺾은 광주은행이 올해 지역 점유율을 35%로 높이기 위한 공격 경영에 나선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사진)은 2022년까지 여수신 시장점유율을 광주 4%포인트 높인 35%, 전남은 6%포인트 오른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연초 세웠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하락에도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첫 단추로 지자체 1급고 역할을 수행하는 5개 출장소를 지점으로 신설, 승격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59년 만에 목포시 금고를 따내고 광산구 1·2급고를 유치했다.

지난 달 목포시청지점과 광주 광산구청 지점이 잇따라 문을 열었으며 광주 동·서·북구 등도 지점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편성하고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6일까지는 '설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투입해 민생안정 대책을 이어간다.

전문 상담원 등 직원 7명이 상주하는 '포용금융센터'(총장로5가)는 지역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금융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금융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총 9억 6400만원 상당 은누리상품권과 광주상생카드를 구매했다.

주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환송행사'와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을 진행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 말에는 광주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정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새로운 2020년을 시작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달을 보냈다"며 "거근고 졸을 바꿔 다시 견고하게 매는 '해협경장'(解弦更張)의 의지로 임직원들과 신년 각오를 다지고 2020년 더 높이 받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천연 공기청정기 들이세요" 10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2층 '페이지그린' 매장에서 반려식물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수경재배 식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신종 코로나에 비상경영" 금호고속, 무급 휴직 실시

사무직 5일~30일 휴직 가능

금호고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상경영 차원에서 사무직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고, 전세버스 예약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게 금호고속의 설명이다.

우선 오는 4월까지 사무직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직을 받기로 했으며, 휴직 기간은 5일에서 30일 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승무사와 기술사원 대상으로는 장기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해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금호고속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직 320명, 승무사원 1900명, 기술사원 130명 등 2350여명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고속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권역·영업소에 예방지침을 공지하고, 모든 승무사원에게 마스크 지급을 완료했다. 전 차량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 운행 시 환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운행 종료 후에는 수시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멈췄던 기아차 광주공장 내일부터 순차적 가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휴무에 들어갔던 기아차 광주공장이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에 돌입한다.

10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일까지 휴무가 끝난 뒤 셀트스와 쏘울을 생산하는 광주1공장과 3공장 대형버스 라인은 12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쏘울과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광주 2공장을 비롯해 소하리 1·2공장은 오는 13일 까지 휴업을 연장한 뒤 14일부터 정상가

동에 들어간다.

다만 광주 3공장 불고트랙라인은 14일 까지 휴업한 이후 가동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3공장 군수라인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휴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배선 모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재고가 부족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공장에서는 군수라인을 포함해 하

루 평균 2100여대를 생산중으로, 가동 중단 조치에 총 4000여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부터 중국 현지 국내부품 협력사들이 정상가동에 들어가 숨통을 트였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부품 공급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올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01.07 (-10.88)	↑ 금리 (국고채 3년)	1.30 (+0.02)
↑ 코스닥	676.07 (+3.44)	↑ 환율 (USD)	1187.10 (+0.60)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